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 동 석 *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과 문제점이 발견된다. 특징으로는 교과서의 국어사 문법 내용 제시 방법이 시대사와 분야사로 나뉘어 있다는 점, 국어사의 문법 내용이 현대 국어에 비해 매우 소략하고 그 중에서도 중세 국어의 문법 비중이 높다는 점,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의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교과서의 문법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문법 기술 면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 문헌의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문법 설명이 시대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 문법과 관련해서는 유성과 무성의 대립 관계, 종성 ‘ㅅ’의 음가, 모음 추이, 선어말 어미 ‘-오/우-’의 기능 등과 같이 기술 문법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서 확정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핵심어: 국어사, 기술 문법, 학교 문법, 교과서, 문법 교육, 훈민정음

1. 머리말

학교 문법의 교육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술 문법의 토대 위에 서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법 내용들을 기술 문법의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소모적이기도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하러니와 교과교육학으로서의 국어교육학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법 교육의 내용 구성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실용성, 규범성, 간결성, 통일성 등의 기준이 언급되었는데, 특정 문법 분야의 교육 내용, 특히 국어사의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기술 문법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¹⁾.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문법의 국어사 교육 내용이 기술 문법의 연구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2007 개정 교육 과정부터 국정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사실상 각 교과서마다 문법 교육 내용이 차이를 보이게 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고는 우선 2장에서 그동안 학교 문법에서 국어사 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거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사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4장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²⁾.

2. 국어사 교육 현황

학교 문법에서 국어사의 문법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5차 교육 과정부터다. 5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 ‘부록’으로 ‘옛말의 문법’이 수록되었다³⁾. 내용 항목을 제시하

1) 최근의 연구로 황선엽(2013), 김유범(2013a), 석주연(2013) 등이 있지만, 이들은 각각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교육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여서 기술 문법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2) 16종의 고등 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국어사 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은 이승희(2012)에서 이루어졌다. 본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국어사 교육 내용을 다룬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술 문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도영(1999)는 국어사의 문법 내용을 부록으로 처리한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면 다음과 같다.

(1) ‘옛말의 문법’ 목차

I. 총론

1. 문자
2. 표기법
3. 발음
4. 중세어의 자료적 특성

II. 단어

1. 단어와 형태소
2. 품사 분류
3. 체언과 조사
 - (1) 명사 (2) 대명사 (3) 수사 (4) 조사
4. 용언과 활용
 - (1) 자동사, 타동사, 보조 용언 (2) 불규칙 활용 (3) 어미
5. 단어의 형성

III. 문장

1. 문장의 성분
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1) 사동과 피동 (2) 시간과 태도의 표현 (3) 높임과 낮춤
 - (4)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 (5) 문장의 종결 (6) 긍정과 부정
3. 문장의 짜임새
 - (1) 문장 속의 문장 (2) 이어진 문장 (3) 문장과 이야기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국어사 교육을 문법 교육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김으로써 문법 교육의 가치를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다. 둘째, 이로 인해 국어사 교육이 전체 국어과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이 점점 미미해져 국어사 교육을 더욱 등한시할 염려가 있다. 셋째, 초·중·고에서 배운 국어사 교육을 정리·심화·발전시켜 국어사 교육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문법 교육에서 이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법 교육과정과도 어긋난다.

위의 목차를 토대로 전체적인 체제를 분석해 보면, ‘의미’ 부분이 없고 단어와 문장, 즉 형태론과 통사론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운’ 부분은 ‘총론’의 하위 항목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단어’와 ‘문장’이 상위 항목으로서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는다. 5차 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큰 항목이 ‘총설, 단어, 문장, 말소리, 의미’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어사의 문법 내용은 상대적으로 ‘음운’과 ‘의미’ 부분이 축소되거나 누락되어 있어 영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형태론에 속하는 ‘단어’, 통사론에 속하는 ‘문장’의 문법 내용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반면 ‘음운’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자음의 음소 목록과 체계, 모음의 음소 목록과 체계조차 제시되지 않아 전혀 체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같은 교과서의 현대국어 문법에서 ‘말소리’ 단원이 ‘음성과 음운, 국어의 음운, 음절, 음운의 변동, 사잇소리 현상, 어감의 분화’와 같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⁴⁾.

이러한 양상은 6차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5차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에서 국어사와 관련하여 ‘옛말의 문법’을 부록으로 수록한 것과는 달리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옛말의 문법’과 함께 ‘우리말의 변천’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부록으로 추가된다는 점이다. 전자가 국어사의 특정 시기(중세국어)에 대한 공식적인 기술이라면 후자는 여러 시기에 걸쳐 일어난 문법 변화를 정리한 통시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7차 교육 과정의 문법 교과서에는 부록으로 ‘국어의 옛 모습’과 ‘국어의 변화’가 수록되어 있다.

4)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대학에서 사용되는 중세국어문법론 교재에서도 나타난다. 대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교재들은 음운 부분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음운 체계를 제시하지 않고 몇몇 표기나 문자의 음가를 단편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고 의미와 관련해서는 아예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대국어의 문법 내용 기술에 비하면 국어사의 문법 내용 기술이 소략하고 그것도 부록으로 처리되어 실제로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2007 개정 교육 과정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뀌면서 국어사의 문법 내용 기술에 큰 변화를 맞게 된다⁵⁾.

그 이전 시기까지 고등학교 국어과의 선택 교과가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으로 독립되어 있던 것이 2009 개정 교육 과정부터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으로 재구조화되었다. 아울러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과거에 주입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법 내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탐구 학습과 같이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의 제시 방식이 바뀌었다.

또한 ‘독서’와 ‘문법’이 하나로 묶이면서 한 교과에서 두 영역을 학습하게 됨으로써 과거와 같이 문법 내용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어사의 문법 내용 역시 이전보다 더욱 소략해져 이전 시기에 문법 교과서의 부록을 통해 제시했던 문법 내용들을 교과서에 충분히 담을 수 없게 되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중 ‘독서와 문법 II’의 국어사 관련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독서와 문법 II’의 국어사 관련 내용 체계

국어와 얼

(가) 국어의 변천

① 국어가 걸어온 길

㉞ 국어의 계통을 이해한다.

㉟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국어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이

5) 이도영(1999)와 박형우(2006a), 박형우(2006b)는 문법 교육 과정에 국어사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록’으로 처리한 것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해한다.

②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㉞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의의를 이해한다.

㉟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의 문자 생활사를 설명한다.

③ 선인들의 국어 생활

㊱ 전통적 수사, 속담, 관용어 등에서 알 수 있는 선인들의 국어 생활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국어 생활에 응용한다.

㊲ 국어 수난의 역사를 이해하고 국어를 지키고 사랑한 선인들의 태도를 본받아 국어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집필된 <독서와 문법> 4종의 교과서에서 국어사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국어사 관련 내용
박영목 외(2012)	V. 국어의 역사와 미래 1. 국어의 역사와 변천 (1) 고대의 국어 생활 (2) 중세의 국어 생활 (3) 근대의 국어 생활
윤여탁 외(2012)	III. 언어의 흐름과 독서 1. 국어의 흐름 (1) 국어의 뿌리와 역사 (2) 한글 _ 이기문 (3) 우리 말글 사랑 (4) 선인들의 국어 생활
이남호 외(2012)	III. 국어의 변천 1. 국어의 계통과 언어 변화 2. 고대 국어 3. 중세 국어 4. 근대 국어

이삼형 외(2012)	3. 말과 글의 역사 01 우리 말과 글의 변천 (1) 국어가 걸어온 길 (2) 한글의 창제와 문자 생활 (3) 선인들의 국어 생활 춘향가 _ 작자 미상 (4) 국어 수난의 역사 국문론 _ 주시경
-------------	--

이 중 박영목 외(2012)와 이남호 외(2012)는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라는 기존의 국어사 시대 구분을 이용하여 국어사의 문법 내용을 제시하였고, 윤여탁 외(2012)와 이삼형 외(2012)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분야를 먼저 구분한 후 각 분야에서의 통시적인 변화를 국어사 문법 내용으로 제시하였다⁶⁾. 구체적인 세부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독서와 문법 II>의 국어사 문법 기술 방식

박영목 외(2012) -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이남호 외(2012) -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국어

윤여탁 외(2012) - 음운의 변화, 단어의 변화, 문장의 변화, 담화의 변화

이삼형 외(2012) - 음운의 변천, 단어의 변천, 문장의 변천, 담화의 변천

이러한 기술 방식의 차이는 문법 내용 기술에 약간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어사의 문법 기술에서 의미 영역에 대한 기술이 비교적 빈약한 편인데, 시대별로 문법 기술을 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든 각 시대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언급을 해야

6) 윤여탁 외(2012)와 이삼형 외(2012)에서 시대별로 문법 내용을 제시하는 기존의 기술 방식 대신 분야별로 통시적 변화를 기술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2)의 (가)-①-④에서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국어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고 한 교육 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인 듯하다.

만 한다. 이에 따라 박영목 외(2012)와 이남호 외(2012)는 각 시대별로 어종(語種)의 특징이나 특정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 다소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⁷⁾.

반면 분야별로 통시적 변화를 기술한 윤여탁 외(2012)와 이삼형 외(2012)는 특정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어리다’와 ‘중상’ 등 몇몇 단어의 의미 변화를 언급하는 방식을 취하여, 시대별 기술 방식을 택한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 변화의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 교과서는 오히려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이동과 같은 의미 변화 유형이나(윤여탁 외 2012: 112) 역사적 원인, 언어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과 같은 의미 변화의 원인(이삼형 외 2012: 305)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이삼형 외(2012: 301)는 학교 문법에서 다루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모음 추이를 문법 내용으로 다루었는데, 이는 분야별 변천, 구체적으로 음운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술된 것으로 보인다⁸⁾. 시대별 특징을 언급하는 방식에서는 모음사각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모음 추이와 같은 어려운 개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음 추이에 대한 언급은 분야별 기술 방식을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 방식의 차이가 교과서의 국어사 문법 내용 설명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의미의 경우에는 위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술 방식에 따라 내용 설명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외의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술 문법에서 다루어 온 내용들이 구체적이어서 기술 방식에 따른 문법 내용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서의 문법 내용을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술 방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7) 국어 사전에서는 ‘어종(語種)’을 단순히 ‘언어의 종류’로 뜻풀이하고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대개 ‘어종’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차용어) 등의 어휘 종류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8) ‘모음 추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문법 내용을 한정된 시간 안에 교육해야 하는 교과서의 구조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양한 국어사의 문법 내용을 교과서에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까지 ‘부록’으로 처리되었던 국어사의 문법 내용이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 ‘본문’에서 다루어지게 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부록’에서 중세국어 문법의 핵심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집약되었던 것에 비하면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본문’에서의 기술은 고대 국어 및 근대 국어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그리고 시수의 문제를 고려하게 되면서 내용의 정밀함이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부록’에서 다루느냐 ‘본문’에서 다루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구체적인 국어사 교육 내용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독서와 문법 II>의 국어사 내용 기술 방식은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문법 분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시대를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국어의 계통과 형성,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로 나누어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⁹⁾.

3.1. 국어의 계통과 형성

국어의 계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어가 어떤 어족에 속하는

9)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내용 역시 국어사의 문법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훈민정음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한 내용이 집약되어 상당히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본고에서는 지면 등을 고려하여 음운, 형태, 통사, 의미와 같은 구체적인 문법 분야의 기술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고 훈민정음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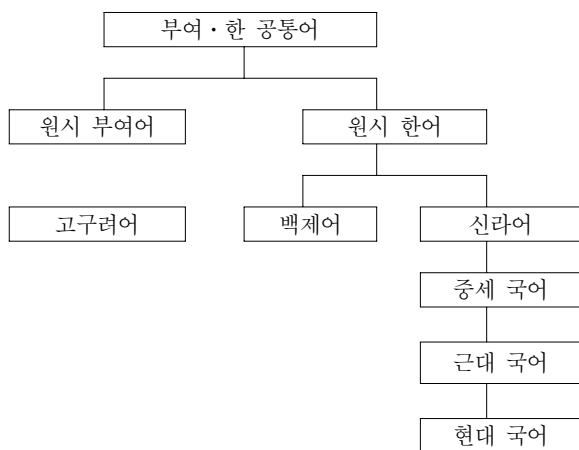
나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4종 교과서 모두 알타이 어족설이 가장 유력하거나 대표적인 학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타이 어족설 외에도 다른 견해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박영목 외(2012: 311), 윤여탁 외(2012: 110), 이삼형 외(2012: 298)는 모두 알타이 어족설 외에도 고시베리아 어족설, 드라비다 어족설이 있음을 교과서의 본문, 날개, 참고 상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남호 외(2012: 104)는 다른 어족설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알타이 어족설은 기초 어휘의 일치 및 음운 대응의 규칙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는 설명을 통해 알타이 어족설이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점을 소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과거에 국어가 우랄-알타이 어족 또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확정적으로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매우 유연한 기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강력했던 알타이 어족설에 대해 그동안 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대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다.

<그림 1> 국어의 형성 과정



일반적으로 국어가 알타이 공통 조어에서 가장 먼저 분화되어 나와 북쪽에서는 원시 부여어가, 남쪽에서는 원시 한어가 형성되었다가 다시 원시 부여어는 고구려어로, 원시 한어는 백제어와 신라어로 분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고려가 건국하면서 신라어가 중세 국어의 근간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윤여탁 외(2012: 111)와 이삼형 외(2012: 299)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박영목 외(2012: 311)는 삼국 통일까지는 같은 내용으로 서술하되 신라어가 고려어로 이어져 중세 국어의 근간이 되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이남호 외(2012: 104)는 신라어와 고구려어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중세 국어가 형성되었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기술 내용 및 태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4종 교과서 모두 삼국의 언어 형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국어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구려어와 백제어, 신라어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¹⁰⁾. 이와 관련하여 윤여탁 외(2012: 110)는 고구려어, 백제어, 신라어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가진 언어들로 발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았고, 이삼형 외(2012: 298)는 이들이 부여·한 공통어로부터 분화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면서 차이점도 어느 정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언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남호 외(2012: 104)는 이들이 서로 다른 언어였는지 아니면 방언적 차이만을 지닌 하나의 언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시 부여어에 소급되는 고구려어와는 달리 백제어와 신라어가 함께 원시 한어로부터 왔다는 설명은 이들 언어의 차이가 방언적 차이 이상이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하여, 고구려어가 백제어 및

10) 삼국의 언어를 논하는 것은 국어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고대 국어와도 관련이 있다.

신라어와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박영목 외(2012: 311)는 삼국의 언어가 아닌 원시 부여어와 원시 한어를 언급하며 이들이 방언 차이의 수준이었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삼국의 언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성에 대해서는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2. 고대 국어

고대 국어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표기법이다. 4종의 교과서 모두 차자 표기법을 다루었다. 고유 명사 표기, 이두, 구결, 향찰이 공통적으로 다루어졌으며 박영목 외(2012: 312)와 윤여탁 외(2012: 125)는 서기체 표기까지 다루었다.

이 표기법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설명할 것인가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4종의 교과서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차자 표기법의 기본 원리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우리말을 표기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본 원리를 본문에서 다룬 교과서는 이남호 외(2012: 110)와 이삼형 외(2012: 322)이다. 전자는 음독자와 훈독자를, 후자는 음독과 훈독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반면 다른 2종의 교과서는 본문에서 먼저 차자 표기법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학습 활동에서 구체적인 차자 표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음독과 훈독을 구별하도록 하였다. 차자 표기의 한자 운용 방식이 매우 기본적이고 학생들이 차자 표기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본 원리를 먼저 학습한 후 이를 개별 차자 표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정 차자 표기 자료를 통해 음독과 훈독의 개념을 학습하도록 할 경우에는 이것이 차자 표기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개념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원리에 대한 학습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고대 국어의 문법 내용이다. 고대 국어의 문법

내용에 대해서는 4종의 교과서가 심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대 국어 문법 설명

교과서 분야	박영목 외 (2012)	윤여탁 외 (2012)	이남호 외 (2012)	이삼형 외 (2012)
음운		자음 체계	자음 체계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모음 체계
			음절 말 제약	
형태· 통사			조사 목록	
			높임법	
의미			어휘	

위의 표를 보면 문법 설명이 전혀 없는 교과서부터 음운, 형태·통사, 의미까지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문법 설명을 한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내용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문법의 연구 성과를 어느 선까지 학교 교육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기술 내용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는 대개 예사소리 계열, 거센소리 계열, 된소리 계열의 발달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여탁 외(2012: 111)와 이삼형 외(2012: 300)는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 계열과 거센소리 계열만 있고 된소리 계열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이남호 외(2012: 114)는 거센소리 계열이 발달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세부적인 면에서 다른 두 교과서와 다른 기술 태도를 보였다.

이남호 외(2012: 114)는 고대국어에서 음절의 끝 자음이 오늘날과는 달리 본래의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근거로 학습 활동을 통해 ‘닛금(尼叱今=尼斯今=尼師今)’의 예를 제시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고대 국어에서 음절 말 자음이 외파되었을 가능성에 공감하기는 하지만, 음절 말 파열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기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 문법에서 다루기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남호 외(2012: 114)에서는 조사 목록으로 향찰과 이두의 주격 ‘伊, 是’, 관형격 ‘矣, 衣, 叱’, 부사격 ‘中, 良中, 留’, 목적격 ‘乙, 肱’ 및 보조사 ‘隱, 置’ 등의 예를 제시하였고, 높임법으로는 향가의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을 언급하였다. 어휘와 관련해서는 ‘千隱(천은)’처럼 중세 국어의 어휘(즈른)와 일치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금을 나타내던 ‘次次雄, 尼師今, 麻立干’이 ‘王’으로 대체되고 경덕왕 때에 고유어 지명이 한자로 바뀐 점 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3종의 교과서에서는 고대 국어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3.3. 중세 국어

4종의 교과서가 모두 고려 건국부터 16세기까지의 국어를 중세 국어로 분류하였다. 3종의 교과서는 이를 다시 둘로 나누어 고려의 언어와 조선의 언어를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로 나누었으나 윤여탁 외(2012)는 중세 국어를 더 세분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3종의 교과서 중 이삼형 외(2012)만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를 문법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뿐 나머지 두 교과서는 사실상 후기 중세 국어의 문법 내용을 중세 국어의 문법 내용으로 소개하였다. 이삼형 외(2012)도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다룰 때만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를 나누어 설명했을 뿐 나머지 단어, 형태, 의미, 문장 등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는 전기와 후기에 대한 구별 없이 후기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일반적인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다루었다.

이처럼 전기 중세 국어, 즉 고려어의 문법 내용은 학교 문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는 기술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자료의 한계 등 전기 중세 국어 연구의 어려움을 이해시키고 후기 중세 국어 위주로 문법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중세 국어는 고대 국어에 비해 문법적인 기술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각 교과서의 문법 설명 중 음운 및 표기와 관련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세 국어 음운·표기 설명

교과서 내용	박영목 외 (2012)	윤여탁 외 (2012)	이남호 외 (2012)	이삼형 외 (2012)
된소리 계열 등장	○	○	○	○
어두 자음군	○	○	○	
ㄹ, ㄷ	○	○		○
ㅁ, ㅂ	○			
‘ㅇ’의 음가				○
음절 말 ‘ㄷ’과 ‘ㅅ’의 대립	○		○	
‘ㅈ, ㅊ’의 음가			○	
·		○		
모음 사각도				○
모음 추이				○
모음 조화	○			
성조 및 방점	○	○	○	○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세 국어의 음운·표기에 대한 설명 중 4종의 교과서가 모두 일치를 보이는 내용은 ‘된소리 계열’과 ‘성조 및 방점’에 대한 설명뿐이다. 그만큼 학교 문법에서 가르쳐야 할 중세 국어의 문법 내용을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된소리 계열은 ㅅ계 합용병서, 어두 자음군은 ㄴ계 합용병서의 음가와 관련이 있다¹¹⁾. 어두 자음군의 존재에 대해서는 3종의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개별 문자의 음가와 관련하여 윤여탁 외(2012: 111)는 ‘ㄴ’과 ‘ㄷ’을 마찰음으로, 이삼형 외(2012: 300)는 ‘ㄴ, ㄷ, ㅇ’을 유성 마찰음으로 보았다. ‘ㄴ’과 ‘ㅇ’의 음가에 대해서는 기술 문법에서도 의견이 나뉘는데, 음가 문제를 다룬 교과서에서는 (유성) 마찰음으로 보는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

음절 말 ‘ㄴ’의 음가를 다룬 2종의 교과서는 모두 음절 말에서 ‘ㄴ’과 ‘ㄴ’이 대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기술 문법에서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ㄴ’이 외파되었다는 의견을 따르고 있다.

이삼형 외(2012: 301)는 유일하게 모음 추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음 추이 역시 의견이 다양하고 모음의 음가에 대한 추정이 학자들마다 달라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다.

다음으로 형태·통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형태·통사와 관련된 4종 교과서의 제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그러나 된소리 계열과 관련하여 윤여탁 외(2012)와 이남호 외(2012)는 직접적으로 ㅅ계 합용병서를 문자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ㅅ계 합용병서 자체의 음가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고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았던 된소리 체계가 중세 국어에 와서 발달했다는 체계적인 부분에 초점을 둔 설명으로 볼 수 있다.

<표 3> 중세 국어 형태·통사 설명

교과서 내용	박영목 외 (2012)	윤여탁 외 (2012)	이남호 외 (2012)	이삼형 외 (2012)
주격 조사	○	○		○
관형격 조사			○	○
호격 조사			○	
주어적 속격				○
불규칙 곡용	○		○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		○		
의문법		○	○	○
높임법	○	○	○	○
시제법				○
선어말 어미 ‘-오-’	○	○	○	○
용언 분화의 미완성			○	
비통사적 합성어			○	
단형 사동사· 피동사 발달		○		
사동 접미사 ‘-으-’			○	
서수사 파생			○	
일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을/을’			○	

형태·통사 분야에서도 4종의 교과서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4종의 교과서가 공통으로 다룬 내용은 높임법과 선어말 어미 ‘-오-’에 대한 것뿐이다.

격조사와 관련해서는 주격 조사가 ‘이’뿐이라는 점을 다룬 교과서가 3종이고, 관형격 조사, 호격 조사 등 주로 현대 국어와 차이를 보이는 조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삼형 외(2012: 310-311)는 이른바 ‘주어적 속격’을 다루기도 했다¹²⁾. 불규칙 곡용형으로는 이남호 외(2012: 118)에서 ㄱ곡용어를, 박영목 외(2012: 318)에서 ㄱ곡용어와 ㅎ곡용어를 다루었다.

어미와 관련해서는 윤여탁 외(2012: 113)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 ‘-르’이 명사형의 기능을 갖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3종의 교과서에서 의문형 어미의 복잡한 양상을 다루었다¹³⁾.

의문형 어미를 3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윤여탁 외(2012: 114)와 이삼형 외(2012: 307-308)는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이나에 따라, 그리고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형 어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이남호 외(2012: 118)는 판정과 설명의 경우를 나누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높임의 의문형 어미 ‘-잇가(판정), -잇고(설명)’와 의문 보조사 ‘-가(판정), -고(설명)’의 목록만 제시하였다.

12) 이삼형 외(2012:310)는 ‘가섭(迦葉)의 능(能)히 신수(信受)호물 찬탄(讚歎)하시니라’ <월인석보 13:57>의 예를 들어 명사절과 관형사절의 주어에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가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을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고향의 봄’의 노래 가사가 ‘내가 살던’이 아니라 ‘나의 살던’으로 되어 있는 점을 연결시켰다. 이러한 주어적 속격은 사실 향가 작품에서도 발견이 된다(이동석 2009, 2010, 2011). 국어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어적 속격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동석(2011)은 7세기의 향가와 13세기의 구결은 물론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매 세기마다 주어적 속격이 사용된 문헌 예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적 속격을 일본어의 영향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3) 윤여탁 외(2012:113)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 -르’이 명사형 어미로 사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4종의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고 문법 내용만 설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칫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종의 교과서가 모두 다른 높임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모두 높임법을 더 세분화하고 있는데, 윤여탁 외(2012: 113)는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주체 높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한영목 외(2012: 318)는 상대 높임법에서 선어말 어미 ‘-이-’를 언급하지 않고 ‘흐라체, 흐야썌체, 흐쇼셔체, 반말체’의 등급만 언급하였다. 이삼형 외(2012: 308)는 상대 높임법을 설명하면서 선어말 어미 ‘-이-’도 언급하고 높임법의 등급도 언급하였는데, 한영목 외(2012: 318)와는 달리 ‘반말체’를 제외한 3등급 체계를 제시하였다.

선어말 어미 ‘-오-’도 4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언급하였지만, 박영목 외(2012: 318)는 1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경우만 다른 반면 윤여탁 외(2012: 113)와 이삼형 외(2012: 311)는 관형사형에서 사용되는 경우까지도 다루었다. 이남호 외(2012: 118)는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라는 용어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의 어휘와 의미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한 편이다. 박영목 외(2012: 318)는 현대에 사라진 고유어가 많이 쓰였다는 점, 한자어 귀화어, 몽골 어와 여진어의 영향 등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남호 외(2012: 118)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 고유어끼리 대체된 예, 음성 상징에 의한 의미 차이, 어휘적 높임법, 중국의 근대음에 기반한 새로운 차용어 등에 대해 다루었다. 윤여탁 외(2012: 112-113)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의 예를 살폈으며, 이삼형 외(2012: 305)는 단어의 의미 및 형태가 변화한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 윤여탁 외(2012: 114)와 이삼형 외(2012: 113)는 담화의 변천이라 하여 중세 국어 문장의 길이가 현대 국어보다 훨씬 길었음을 언급하였다.

3.3. 근대 국어

근대 국어 역시 4종의 교과서에서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음운과 표기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근대 국어 음운·표기 설명

교과서 내용	박영목 외 (2012)	윤여탁 외 (2012)	이남호 외 (2012)	이삼형 외 (2012)
△ 소실	○		○	○
모음 사각도				○
· 소실	○	○	○	○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		○	○
원순모음화	○			
어두 자음군의 된소리화	○	○	○	
거센소리화	○			
된소리화	○			
어두 ㄴ 탈락	○			
구개음화	○		○	
치음 뒤 전설모음화			○	
방점 폐지 (성조 소멸)	○	○	○	○
7중성 표기	○			
중철 및 분철 표기	○		○	

ㅇ 폐지			○	○
ㅎ 폐지				○

근대 국어의 음운 및 표기와 관련하여 4종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내용은 ‘·’의 소실과 성조의 소멸(방점 폐기)이다. 그 다음으로 어두 자음군의 된소리화를 3종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비계 합용병서가 근대 국어 시기에 사계 합용병서로 표기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도 3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 비교적 비중있게 취급되었다.

박영목 외(2012: 326)는 근대 국어의 음운 현상을 다양하게 다룬 가운데 대부분의 교과서가 표기의 변화를 중심으로 근대 국어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결부시켰다.

위의 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다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세 국어에 비해 양이 많은 편이 아니다. 다만, 각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 보니 전체 항목의 수가 늘어나 많은 내용을 다룬 것처럼 보일 뿐이다.

<표 5> 근대 국어 형태·통사 설명

교과서 내용	박영목 외 (2012)	윤여탁 외 (2012)	이남호 외 (2012)	이삼형 외 (2012)
주격 조사 ‘가’	○	○	○	
ㅅ불규칙 ㄷ불규칙	○			
‘-오/우-’ 소멸	○	○	○	○
객체 높임법의 상대 높임법 전환	○		○	

명사형 어미 ‘-기’ 활성화	○		○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의 형태 같아짐			○	
‘-스럼-’ 출현			○	
‘-앗/엇-’ 확립		○	○	
‘-겻-’ 확립		○	○	
‘첫째’ 출현			○	
어간 ‘잇-’ 단일화			○	
대명사 ‘누고, 누구’			○	

근대 국어의 형태·통사와 관련된 내용도 역시 4종 교과서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오/우-’의 소멸과 관련해서 4종의 교과서가 공통된 모습을 보일 뿐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근대 국어를 대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과도기 단계로 인식하면서 근대 국어 자체의 공식적인 성격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근대 국어 문법에 대한 설명이 중세 국어에 비해 비중이 높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법 설명에서도 교과서마다 큰 편차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근대 국어의 어휘 및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남호 외(2012: 125)에서 고유어가 폐어화되거나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만들어진 점, 한자어 중에서도 없어지거나 의미가 바뀐 경우가 많은 점, 중국어 차용어의 한자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널쿠, 소부리’ 등 만주어 차용어가 사용된 점 등을 들었다.

박영목(2012: 327)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고 근대 문물의 도입으로 중국어 차용어가 많이 유입된 점, 어휘의 의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난 점 등을 들었다. 분야별로 국어사를 기술한 나머지 2종의 교과서에서는 근대 국어의 어휘와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4. 종합적 분석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문법의 국어사 기술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기술 문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 문법과의 관련성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국어사 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첫째, 교과서의 국어사 내용 제시 방법이 시대사와 분야사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종의 교과서 중 2종은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와 같이 시대별 특징을 다루는 반면 2종은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나누어 각각의 문법 분야에서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다루었다.

사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자의 방식은 각 시대별로 공식적인 언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문법 분야의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자의 방식은 특정 문법 분야의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대별 언어의 특징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술 문법의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보아도 저서의 경우에는 주로 시대사의 방식을 취하고 소논문의 경우에는 주로 분야사의 방식을 취하여

어느 방식이 더 보편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처럼 방식의 차이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므로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기술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둘째, 국어사의 문법 내용이 현대 국어의 문법 내용에 비해 매우 소략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 현대 국어에 대한 문법 기술은 대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의 각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음운론 분야에서는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음운 변동을, 형태론에서는 단어의 구조와 단어 형성 그리고 품사를, 통사론에서는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과 다양한 문법 범주를, 의미론에서는 의미의 유형과 의미 관계, 문장 의미 등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현대 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 국어 이전의 언어를 통틀어 현대 국어와 대비되는 하나의 기술 단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음운론 분야만 보더라도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음운 변동을 학교 문법에서 공식적으로 다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문법 교육에 주어진 학습 시간을 감안할 때,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고려할 때 현대 국어와 그 이전 시기의 국어에 대한 기술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구체적인 문법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압축하여 기술하느냐 하는 데 있다. 이

14) 이는 ‘국어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현 대사가 역사의 일부이듯이 엄밀히 말해 ‘국어사’의 범위에 현대 국어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국어사 교재 중에는 ‘현대 국어’까지 포함하여 문법적 특성을 기술한 책들이 있다. 그러나 대개 ‘국어사’라고 하면 현대 국어를 제외한 그 이전 시기의 국어를 지칭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문법 기술이 현대 국어와 현대 이전의 국어로 나뉘는 경향을 보인다. 이관규(2004)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학교 문법의 국어사 기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셋째,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볼 때 중세 국어의 비중이 고대 국어 및 근대 국어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기술 문법의 연구 내용 및 성과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고대 국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중세 국어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근대 국어 역시 최근에 와서야 연구가 활성화되는 양상이어서 전통적으로 중세 국어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고대 국어의 경우 자료의 한계 때문에 중세 국어만큼 자세하게 문법을 기술하기 어려운 점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 창제로 인해 (후기) 중세 국어 시대에 이르러서야 국어의 문법적인 모습들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에서 중세 국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국어사의 문법 내용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국어사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독서와 문법 II> 교육 과정에서 국어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 체계는 너무나 소략하여 어떤 문법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지 전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해설서인 교육과학기술부(2009: 210)를 보아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되지 않아 내용 항목 설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4)

㉞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국어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이 내용은 국어의 역사에 대한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설

정하였다. 언어, 문학, 역사의 고전 자료는 역사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미래 문화 창조의 원천이므로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인문 교육에서 교양 교육의 기본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양한 고전 언어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려면 옛말 문법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서는 국어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부록으로만 제시하여 국어사 관련 내용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국어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 국어사를 지나치게 넓고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

‘.’(아래아)의 소실을 비롯한 음운 체계의 변천, 단어의 형태와 의미 변화, 높임법의 변화와 같은 문장의 변화, 담화 소통 방식 및 담화 범주의 변천 등 국어사의 중요 사실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고대, 중세, 근대 국어 시기의 중요한 특징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좋다.

국어 변천사를 다룰 때는 국어사적 지식을 단편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가치 있고 유의미한 고전 자료를 풍부히 제시하여 자료를 직접 읽어 보고 그 특징들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보니 현재로서는 교과서 집필자들이 임의로 문법 내용을 선별하여 교과서에 기술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지나치게 구속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대개 문법의 경우 그 이전에 국정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참고하기 때문에 사실 큰 혼란은 없다. 그런데 국어사의 경우에는 이전 시기의 문법 교과서에서 부록으로만 처리했을 뿐 본문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아 이전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권재일(1995), 김영옥(1998), 이도영(1999), 박형우(2004), 김경현(2005), 박형우(2006a), 김영란(2007: 48-51), 김상돈(2010), 전유리

(2011: 44-48), 김도혁(2012: 28-30), 양정호(2012), 김유범(2013a) 등에서 국어사 교육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개 국어의 계통, 훈민정음, 국어의 변천 등과 같은 큰 범주 위주로 설명을 할 뿐 구체적인 내용 항목에 대한 제시가 없어 문법 항목의 편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중 비교적 구체적인 문법 항목을 제시한 논의로는 박형우(2006a)와 김유범(2013a)가 있다. 먼저 박형우(2006a)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ㄱ. 고전 자료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
 - 중세 국어 표기법, 소실 문자의 발음
- ㄴ. 현대 국어의 문법과 연계성을 갖는 내용
 - 흥곡용 체언, 함용병서 표기, 모음조화, 비통사적 합성어, 관형절과 명사절의 주어에 쓰인 관형격 조사 등
- ㄷ. 중세 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된 문법 사항
 - 체언의 곡용, 객체존대선어말어미의 쓰임, 의문문의 어미, 품사의 통용 등

박형우(2006a)는 국어사에서 가르칠 내용 항목의 기준을 크게 셋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준에 해당하는 문법 항목의 예를 제시하였다. 김유범(2013a)는 다음과 같이 중세 국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¹⁵⁾.

- (6) ㄱ. 중세 국어 소개 내용
 - 중세 국어의 형성과 시기, 중세 국어 이해의 의의
- ㄴ. 중세 국어의 표기 관련 내용

15) 김유범(2013a)는 중세 국어의 문헌자료 관련 내용과 훈민정음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지만, 본고는 문헌자료와 훈민정음 관련 내용을 논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 이어적기(연철, 붙여쓰기), 세로쓰기, 현재 쓰지 않는 글자(병, △, ㅎ, ㆁ, ㆏, ㆑), 8중성 표기법, 방점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 ㉔. 중세 국어의 음운 관련 내용
 - 삼지적 상관속을 이룬 자음 체계, 7모음의 단모음 체계, 이중모음 ‘ㅁ’와 ‘ㄴ’의 음가, 성조 체계, 어두 자음군, 모음조화, ‘ㄱ’의 탈락(약화)
- ㉕. 중세 국어의 문법 관련 내용
 - 체언의 형태 교체, ‘ㅎ’ 보유 체언, 용언의 미분화 양상, 비통사적 합성어, 모음조화에 따라 결합되는 조사와 어미, 높임법 관련 조사와 어미, 주격 및 관형격 조사, 인칭 제약을 갖는 어미, 의문문의 특성, 현대 국어와 다른 문장 구조, 복잡하고 긴 문장의 특성
- ㉖. 중세 국어의 어휘 관련 내용
 -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양상, 특징적인 개별 어휘, 현대 국어와 연결되는 개별 어휘
- ㉗. 중세 국어의 변화 관련 내용
 - 표기법의 변화(분철 및 중철 표기, 중성 표기), 음운의 소실(병/ㅁ, /, △/ 및 일부의 / ㆏ /)

최근 위와 같이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를 토대로 국어학계 및 국어교육학계에서 구체적인 국어사의 내용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 내용 항목의 편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용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집필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적인 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할 듯하다. 본고는 분석적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를 중심으로 **중지(衆志)**를 모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과서의 문법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고대 국어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중세 국어 및 현대 국어의 근간에 대한 설명에서 윤여탁 외(2012: 111)와 이삼형 외(2012: 299)는 신라어가 근간이 되는 것으로 설명했지만, 이남호 외(2012: 104)는 신라어와 고구려어 중 어느 쪽이 근간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박영목 외(2012: 311)는 아예 이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삼국 언어의 유사성과 관련해서 윤여탁 외(2012: 110)와 이삼형 외(2012: 298)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이남호 외(2012: 104)는 고구려어와 백제어·신라어가 방언 이상의 차이를 가졌을 것으로 보았고 박영목 외(2012: 311)는 원시 부여어와 원시 한어에 대한 언급이긴 하지만 이 두 언어가 방언 차이의 수준이었을 것이라 추정하여 세밀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고대 국어의 예사소리와 관련해서도 윤여탁 외(2012: 111)와 이삼형 외(2012: 300)는 고대 국어의 자음 체계에 예사소리 계열과 거센소리 계열만 있고 된소리 계열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이남호 외(2012: 114)는 거센소리 계열이 발달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역시 미시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기술상의 차이는 고대 국어 자료의 한계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자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보니 고대 국어에 대한 추정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국어와 관련하여 위의 내용들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국어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교과서에서 조심스럽게 ‘추정’이라는 태도를 취했고 고대 국어의 문법적 사실을 확정적으로 기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기술상의 차이점을 용인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세 국어와 관련해서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서 기술 내용의 차이

가 발견된다. 한영목 외(2012: 318)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호라체, 호야씨체, 호쇼셔체, 반말체’의 4등급으로 설명한 반면 이삼형 외(2012: 308)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호쇼셔체, 호야씨체, 호라체’의 3등급으로 설명하여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섯째, 교과서의 기술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눈에 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7) ㄱ. 중국 한자음에 있던 된소리가 우리 한자음에는 예사소리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에 된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삼형 외 2012: 300>
- ㄴ. 현대 국어에서 ‘ㅅ’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들은, 중세 국어 시기에 ‘ㅅ’을 받침으로 가지고 있던 용언들이다. <이삼형 외 2012: 301>
- ㄷ. 1인칭과 2인칭 대명사 ‘나’와 ‘너’는 ‘내가’와 ‘네가’에서처럼 주격 조사 앞에서만 ‘내’와 ‘네’로 나타난다. 이것은 본래 ‘나’와 ‘너’에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가 결합된 형태가 모두 ‘내’와 ‘네’였던 것에서 주격형의 경우 주격 조사 ‘가’가 다시 부어 만들어졌다. <이남호 외 2012: 128>
- ㄹ. 된소리가 쓰였으나 아직 덜 발달하였다. [예] 꼬리(꼬리), 싸(땅), 꽃(꽃), 불휘(뿌리) <박영목 외 2012: 318>
- ㄴ.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나모 + 이→남기).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ㅎ이 없이 쓰이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ㅎ이 나타나는 ㅎ 종성 체언이 있었다. [예] 돌+이→돌히, 돌+을→돌흘 <박영목 외 2012: 318>
- ㄷ. 고유어가 한자어로 많이 대체되고(뫼>산, ㄱ툼>강, 아슴>친척), 근대 문물을 도입하여 중국어 차용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예] 무명[木槁], 비단[匹段] <박영목 외 2012: 327>

(7ㄱ)은 고대 국어에 된소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것인데, ‘중국 한자음에 있던 된소리’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 중국의 상고음이나 중고음의 성모 체계에서는 된소리 계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7ㄱ)에서는 마치 중국어에 된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7ㄴ)에서는 ‘받침’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된다. ㅅ 불규칙 활용 용언들이 기저 종성으로 ‘ㄷ’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명을 하고자 한 듯한데, ‘받침’은 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설명대로라면 ‘짚다, 낚다’와 같이 용언 활용형에서 ‘ㄷ’이 받침으로 표기된 예가 있어야 하는데, 논문에서 기저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일부의 예를 제외하고는 ㅅ 불규칙 활용 용언에서 ‘ㄷ’을 받침으로 표기한 예가 드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¹⁶⁾.

(7ㄷ)에서는 ‘나’와 ‘너’가 주격 조사 앞에서만 ‘내’와 ‘네’가 된다고 하였지만, ‘내 마음’, ‘네 모습’과 같이 관형격일 때도 ‘내’와 ‘네’의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라 할 수 없다.

(7ㄹ)은 오류라기보다는 관점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세 국어의 된소리가 덜 발달되었다는 기술이 다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아마도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계속 경음화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렇게 기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삼지적 상관속이라는 체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세 국어 시기에 이미 된소리 계열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7ㅁ)은 ㅎ 곡용어를 설명하면서 출현 환경을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로 한정하여 문제가 된다. ‘돌과, 돌토’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

16) ‘비스다, 비스다, 그스다’와 같은 용언의 경우에는 ‘봣아, 빚어, 굶어’와 같이 활용형에서 ‘ㄷ’이 받침으로 표기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들은 교과서에서 언급한 ㅅ 불규칙 활용 용언과는 다른 유형에 속하는 용언들이다. ‘그스다’의 경우는 현대 국어에 와서 ㅅ 불규칙 활용 용언 ‘긔다’로 변화하기는 했지만, 중세 국어 시기에는 역시 성격이 다른 용언이었다.

사와 결합할 때도 ‘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출현 환경의 일부만을 제시했다고 해서 이 기술 자체를 오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박영목 외(2012: 331)를 보면 ‘되과 ㄹ롬썸’을 현대 국어로 바꾸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쓰도록 하는 학습 활동이 있다. 근대 국어 자료인 두시언해 중간본의 예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ㅎ 곡용어의 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ㅎ’이 나타나는 예를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7ㄴ)은 근대 국어의 어휘와 관련된 설명이다. 위의 설명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유입된 차용어의 예로 ‘무명’과 ‘비단’을 들었다. 그런데 이 두 어휘는 다음과 같이 이미 중세 국어 문헌에서 발견된다.

(8) ㄱ. 段(綴) 必膽 <朝鮮館譯語 衣服門>

값 두 녀 퍼네 無數흔 보비엿 幢幡蓋와 香花와 眞珠 璵珞과 各色 金線 비단과 풍류와를 석식기 꾸며 기드리습더니 <釋譜詳節 23:50b>

文이 비단 紋 곁히시고 비치 朱丹 곁히샤미 第八十이시니라 <法華經諺解 2:19a>

ㄴ. 갓까스로 버러 무명 두 필 보내노라 <순천김씨언간>

또 무명 열 필 두 못그믄 가느니라 <순천김씨언간>

(8ㄱ)은 ‘비단’의 예이고 (8ㄴ)은 ‘무명’의 예이다. ‘비단’은 <朝鮮館譯語>에서 ‘必膽’으로 기록된 바 있고 정음 초기 문헌에 두루 나타나며, ‘무명’은 언간 자료이기는 하지만 16세기 자료에 출현하므로 이들 어휘를 근대 국어 어휘의 특징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표기 오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 (9) ㄱ. 의미가 변화하되 적용되는 영역이 원래 영역보다 좁아지게 된 것은 의미의 축소로, ‘스랑하다’가 ‘생각하다[思]’와 ‘사랑하다[愛]’의 두 가지 의미에서 점차 ‘사랑하다[愛]’의 의미만을 갖게 된 것이 그 예이다. <윤여탁 외 2012: 112>

ㄴ. 이 대시주(大施主)의 득(得)혼 공덕(功德)이 하녀 몬 하녀 (“월인석보” 권 17, 48장)

이 엇던 광명(光明)고 (“월인석보” 권 10, 7장)

아바넝 병(病)이 기프시니 엇데 흐료 (“석보상절” 권 11, 18장)
<이삼형 외 2012: 307>

(9ㄱ)의 ‘스랑하다’는 명백한 표기 오류에 해당한다. ‘스랑하다’와 같이 둘째 음절의 중성을 ‘ㅇ’으로, 셋째 음절의 중성을 ‘·’로 표기해야 올바른 표기가 된다. (9ㄴ)의 ‘공덕, 광명, 병’은 중세 국어 문헌에서 불가능한 표기다. 이는 초성 표기로는 ‘ㅇ’을, 중성 표기로는 ‘ㅇ’을 사용하는 중세 국어의 기본적인 표기법에 어긋난다. 원문의 한자어 ‘功德, 光明, 病’을 괄호 안에 집어 넣고 이 한자어의 발음을 괄호 앞에 내세우는 바람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자칫 학생들이 위와 같은 표기가 원래 문헌의 표기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므로 예문을 제시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¹⁷⁾.

다음과 같이 부호 사용에서도 다양한 오류가 발견된다.

(10) ㄱ.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오-’는 “내…스물여덟 자를 밍ᄌ노니(밍ᄌ+ㄴ+오+니)”에서처럼 문장의 주어가 1인칭임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었다. <운여탁 외 2012: 113>

ㄴ. ‘밍ᄌ노니’는 ‘밍ᄌ+ㄴ+오+니’로 분석되며 이때 ‘-오-’는 문장의 주어가 1인칭 화자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박영목 외 2012: 318>

ㄷ. 그래서 ‘소고기’는 본래 ‘쇠고기’(쇼+ㅣ#고기)로부터 변환된 ‘쇠고기’와 함께 복수 표준어가 되었다. <이남호 외 2012: 129>

ㄹ. 고바 → 고와, 구벼 → 구워, 고삐 → 고이, 아수 → 아우, 밋술 → 마을 <이삼형 외 2012: 300~301>

ㅁ. 예를 들면 ‘밤’, ‘구름’, ‘벼리(‘별’의 옛말)’를 각각 ‘夜音’, ‘雲音’,

17) 원문의 표기는 ‘功功德득’, ‘光광명명’, ‘病병’이다. 방점은 생략하였다.

*星利'로 적었는데 <이남호 외 2012: 112>

(10ㄱ)과 (10ㄴ)은 형태소 분석을 하면서 ‘-’을 사용하지 않은 오류이다. (10ㄱ)과 (10ㄴ) 모두 특정 형태소를 지칭할 때는 ‘-오-’와 같이 ‘-’을 사용하면서도 형태소 분석을 할 때는 ‘-’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관성이 없는 기술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의존 형태소라 하더라도 조사의 경우 ‘-’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에 따라 모든 교과서가 조사 앞에는 ‘-’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10ㄷ)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 앞에 ‘-’을 사용하여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말았다. 이남호 외(2012)에서는 조사를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10ㄷ)과 같이 형태소 분석에서는 조사 앞에 ‘-’을 사용하여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¹⁸⁾.

(10ㄹ)은 통시적인 변화에 ‘>’를 사용하지 않고 ‘→’를 사용한 예이다. 일반적으로 기술 문법에서는 공시적인 변동을 나타낼 때 ‘→’를, 통시적인 변화를 나타낼 때 ‘>’를 사용하는데, (10ㄹ)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10ㅁ)에서는 ‘*’의 사용이 부정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남호 외(2012:112)는 교과서의 날개에서, ‘*’ 표시가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부호를 본문에서 ‘星利’ 앞에 사용하였다. 이는 ‘星利’가 문증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가능한 표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星利’는 향가 ‘曄星歌’에 나오는 표기여서 사실상 ‘*’가 필요 없다. ‘夜音’, ‘雲音’에는 ‘*’를 사용하지 않고 ‘星利’에만 ‘*’를 사용한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¹⁹⁾.

18) 한편 ‘쇠고기’에서 관형격 조사의 형태를 ‘의’로 분석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 일 수 있다. ‘내, 네, 뉘’와 같이 일부 체언에서 관형격 조사가 ‘ㅣ’의 형태로 나타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형태로 ‘ㅣ’를 인정하는 것이 기술 문법의 일반적인 견해다.

19) ‘夜音’은 ‘慕竹旨郎歌’에, ‘雲音’은 ‘讚耆婆郎歌’에 나온다.

- (11) ㄱ. 중세 국어 의문법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 의문형 어미가 ‘-ㄴ다’ 또는 ‘-ㄹ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되는 어니 저기 도라올다 (“두시언해” 권 22, 30장) <이삼형 외 2012: 308>

ㄴ. 東京明期月良 / 동경 불기 드라라

明期月 / 불곤 둘 <박영목 외 2012: 314>

위의 (11ㄱ)에서는 2인칭 의문형 어미로 ‘-ㄴ다’와 ‘-ㄹ다’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문으로 <杜詩諺解>의 ‘도라올다’를 제시하여 설명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과 같이 ‘-ㄹ다’가 표기된 예문을 제시하거나 설명에서 어미의 형태를 ‘-ㄴ다’로 수정하여 설명과 예문이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2) 大臣을 請^홍다 婆羅門居士를 請^홍다 <月印釋譜 21: 195a>

므스 이를 홍다 <月印釋譜 22: 71a>

(11ㄴ)에서는 <향가 해독법 연구>(김완진)의 해독을 인용하여 처용가의 첫 구절인 ‘東京明期月良’을 ‘동경 불기 드라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뒤이어 ‘明期月’을 설명할 때는 해독을 ‘불곤 둘’로 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明期’에 대한 해독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서로 다른 해독을 제시하게 되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가 나뉘는 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삼형 외(2012: 299)는 그 기점을 훈민정음(15세기)으로 보았고 박영목 외(2012: 312)는 한글 창제(1443년)로 보았는데,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반성이 있었던 것처럼 문자 창제가 언어의 차이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훈민정음과 한글 창제를 기점으로 언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이남호 외(2012: 117)는 14세

기를 중심으로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가 나뉜다고 했는데, 특정한 사건보다 시대(세기)를 언급한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이때 기점을 14세기보다는 15세기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듯하다.

일곱째, 문헌의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중세 국어 문헌 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 (13) ㄱ. 元元覺·각·익한아·비늬·고病·뽕·헛더·니元元覺·각·익아·비元元覺·각·일헛야:답사·니·지·여:되·해다·가더·디·라·헛야·늘
- ㄴ. 나·랏 :말쌔·미 中동國·궤·에 달·아 文문字·쥬·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썩
- ㄷ. 普普光광佛佛이 世생界갯에 나가시닐 그뽕 善선慧뽕라 홀 仙선人신이 五肱百뽕 外彔道뽕의 그르 아논 이룰 가르쳐 고터시닐
- ㄹ. ·열·히오·또 :세히어·든 음·악·을 비·호·며 모시(毛詩) 외오며 ·작(勺)·으로 ·춤·츠고 아·히 :일·어·든 ·상(象)으로 ·춤·츠·며
- ㅁ. 이 대시주(大施主)의 득(得)흔 공덕(功德)이 하녀 몬 하녀 (“월인석보” 권 17, 48장)
- 나랏 말쌔미 중국(中國)에 달아 문자(文字)와로 서르 스몏디 아니홀썩
- ㅂ. 西京은 편안흔가 몬흔가

(13ㄱ)은 가로쓰기 한 것만 제외하면 중세 국어 문헌의 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고 한자음과 방점도 원문 그대로 옮겨 놓았다. (13ㄴ)은 한자음과 방점은 원문대로지만 현대식으로 띄어쓰기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

(13ㄷ)은 한자음은 원문대로지만 방점이 생략되고 현대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였다. 반면 (13ㄹ)은 방점과 한자음은 원문대로지만 현대식으

로 띄어쓰기를 하고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 원문에서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13口)은 현대 한자음에 현대식 띄어쓰기를 하고 방점도 찍지 않았고 한자도 괄호 안에 넣어 원문으로부터 더욱 떨어진 모습을 보인다. (13 ㄴ)은 방점도 찍지 않고 한자음도 제시하지 않고 현대식 띄어쓰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 한 교과서에 서로 다른 방식의 표기가 사용된 경우가 많아 문헌 표기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또는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의도적으로 원문의 표기 방식을 달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표기 방식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반드시 그렇게 표기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결국 표기에 원칙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13ㄱ~ㄷ)과 같이 원문의 한자음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이 한자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학습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3ㄹ~ㄴ)과 같이 현대 한자음을 앞에 내세우고 한자를 괄호 속에 넣는 방식은 자칫 원문 표기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자칫 ‘궁덕, 중국’과 같은 현대 한자음 표기를 일반적인 중세 국어 문헌 표기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한자음 표기, 띄어쓰기, 방점 표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문헌 표기를 제시해야 학습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문헌 표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 (14) ㄱ. 네 몸으로부터 보면 너희 둘히 곳 이 兄弟(형제)어니와 네 야양
(爺孃)으로부터 보와는 너희 둘이 다 이 兒子(아자)ㅣ라

20) 윤여탁 외(2012: 114)에서는 훈민정음 서문을 제시하면서 현대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였는데 ‘·몬·홍 ·노·미’는 띄어 쓰면서 ‘·홍·배’는 붙여 쓰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ㄴ. 첨정 도현은 김보현 사롭이니 녀이 흑흑고 형실이 두터우며 몸
조 받 가라 양친흔니

한편 근대 국어 문헌의 경우에는 (14ㄱ)과 같이 한자를 앞에 내세우고 현대 한자음을 괄호 안에 넣거나 (14ㄴ)과 같이 아예 한자를 제시하지 않고 원문의 한자음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기술 문법에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중세 국어에서 유성음을 인정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윤여탁 외(2012: 111)는 ‘빙’과 ‘△’을 마찰음으로, 이삼형 외(2012: 300)는 ‘빙, △, ㅇ’을 유성 마찰음으로 보았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빙’과 ‘△’을 유성음으로 인정하는 편이지만, 이와는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

‘빙’과 관련해서는 양순유성마찰음 /β/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그동안 상징 표기로 보는 견해, 활음 /w/로 보는 견해, 양순무성마찰음으로 보는 견해 등 ‘빙’을 유성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다수 존재한다²¹⁾.

‘ㅇ’을 유성음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다. 분철 표기의 경우 어중의 ‘ㅇ’이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허웅(1957: 159), 유창돈(1961), 김석득(1965), 이성연(1984), 정연찬(1987), 이광호(1995), 허웅(2000) 등 ‘ㅇ’의 음가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많다.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에 무성 대 유성의 대립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사실 긍정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몇몇 자음에서만 유무성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체계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유성음의 존재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 문법에서 유성음의 존재를 언급하는

21) ‘빙’의 음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이동석(2013)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음절 말 ‘ㅅ’의 음가와 관련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개 음절 말 ‘ㅅ’이 [s]로 외파되었다는 설이 확산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허웅(1953, 1957: 183), 이기문(1959: 34) 지춘수(1964, 1971), 최세화(1983), 이은정(1986), 이근수(1986), 지춘수(1986), 이익섭(1987) 등 많은 논의들이 종성 ‘ㅅ’의 외파를 부정하고 ‘ㅅ’이 [t]로 중화되어 발음되었다고 본다²²⁾. 이처럼 기술 문법에서도 종성 ‘ㅅ’의 외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훈민정음>의 종성해(終聲解)에서는 종성 ‘ㅅ’이 불과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15) 聲有緩急之殊 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清不濁之字 其聲不厲 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清次清全濁之字 其聲爲厲 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ㅇㄴㅇㄹㅇㄷㅇㄱㅇㅌ六字爲平上去聲之終 而餘皆爲入聲之終也。(소리에는 느리고 빠름의 차이가 있어 평성, 상성, 거성은 그 종성이 입성의 촉급함에 들지 못한다. 불청불탁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아 종성으로 쓰면 마땅히 평성, 상성, 거성이 된다. 전청자, 차청자, 전탁자는 그 소리가 세기 때문에 종성으로 쓰면 마땅히 입성이 된다. 그 리하여 ㅇ, ㄴ, ㄹ, ㄷ, ㄱ, ㅌ의 6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위의 설명은 종성의 완급(緩急)을 얘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입성은 빨리 끝나는 소리로 음절 말 자음이 불과됨을 뜻한다. 그런데 ‘ㅇ, ㄴ, ㄹ, ㄷ, ㄱ, ㅌ’은 평성, 상성, 거성이 되고 나머지 소리는 입성이 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ㅅ’이 음절 말에서 불과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역시 종성해에 나오는 다음의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다.

22) 허웅(1953, 1957: 183)과 이기문(1959: 34)의 주장은 허웅(1965: 381)와 이기문(1961: 108)에서 바뀐다.

- (16) 五音之緩急 亦各自爲對 如牙之○與ㄱ爲對 而○促呼則變爲ㄱ而急 ㄱ舒出則變爲○而緩. 舌之ㄴㄷ 脣之ㅁㅂ 齒之ㄷㅅ 喉之ㅇㅎ 其緩急相對 亦猶是也.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또한 각자 대(對)를 이루니, 아음의 ‘ㅇ’과 ‘ㄱ’이 대를 이루어 ‘ㅇ’을 빠르게 부르면 곧 ‘ㄱ’이 되어 급해지고 ‘ㄱ’을 천천히 내면 ‘ㅇ’이 되어 느려진다. 설음의 ‘ㄴ’과 ‘ㄷ’, 순음의 ‘ㅁ’과 ‘ㅂ’, 치음의 ‘ㄷ’과 ‘ㅅ’, 후음의 ‘ㅇ’과 ‘ㅎ’이 느리고 빠름에서 서로 대를 이루는 것이 또한 이와 같다.)

위의 설명대로라면 음절 말에서 ‘ㄷ’과 ‘ㅅ’은 완급의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ㄷ’은 느리게 끝나는 소리인 반면 ‘ㅅ’은 빠르게 끝나는 소리가 된다. 이는 곧 음절 말 ‘ㅅ’이 외파되지 않고 불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절 말 ‘ㅅ’의 음가 문제를 다룬 2종의 교과서는 모두 ‘ㅅ’이 음절 말에서 ‘ㄷ’과 대립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 문법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 특히 <훈민정음>의 설명은 음절 말 ‘ㅅ’의 불파를 지지해 주므로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모음 추이는 이삼형 외(2012: 300)에서만 언급되었는데, 역시 학교 문법에서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 모음의 음가를 추정하여 모음의 체계를 재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김주원(1992)처럼 모음 추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확정적으로 교과서에서 다루기에는 부담이 크다.

선어말 어미 ‘-오/우-’는 워낙 중세국어에서 특징적인 문법 형태소이고 사용 빈도도 높기 때문에 학습 내용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을 보였던 문법 사항 중의 하나이다. 교과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면서도 그 기능을 인칭법과 대상법이라는 문법 설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외적인 예문이 존재하고 이견도 있으므로 역시 확정적인 기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²³⁾.

23) 선어말 어미 ‘-오/우-’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한재영(1990)과 임동훈(2005)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기술 문법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기술 항목과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문법 설명이 시대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이남호 외(2012: 124)는 근대 국어 문법을 설명하면서 ‘오/우’의 소멸로 인해 명사형 어미와 파생 접미사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 시기에 명사형 어미의 형태는 ‘-옵/옵’이고 명사 파생 접미사의 형태는 ‘-옵/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²⁴⁾.

그런데 이남호 외(2012)는 중세 국어 문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삼형 외(2012: 301)는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중세 국어의 음운 및 표기와 관련하여 ‘ㅎ’을 언급하지 않았다. 역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관련 예문 없이 단편적인 문법 내용을 나열하는 등 국어사 교육이 단순 암기식 학습 위주로 흘러가게 될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어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5. 결론

지금까지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사의 문법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2014년부터 새

24) ‘오/우’는 원칙적으로 ‘-오/우-’로 표기해야 하는데, 집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듯하다.

로운 교과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본고의 교과서 검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다양한 관점에서 국어사 관련 문법 기술 내용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앞으로 새로운 교과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의 원래 취지는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학교 문법의 국어사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교과서의 문법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학교 문법의 국어사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징으로는 교과서의 국어사 문법 내용 제시 방법이 시대사와 분야사로 나뉘어 있다는 점, 국어사의 문법 내용이 현대 국어에 비해 매우 소략하고 그 중에서도 중세 국어의 문법 비중이 높다는 점,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 항목의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교과서마다 문법 항목의 편차가 크다는 점은 내용상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교육 내용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인정 교과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교과서의 문법 설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문법 기술 면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 문헌의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문법 설명이 시대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술 문법과 관련해서는 기술 문법에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내용을 교과서에서 확정적으로 기술한 경우가 더러 눈에 띈다. 예컨대 유성과 무성의 대립 관계, 종성 ‘ㅅ’의 음가, 모음 추이 등과 관련해서는 기술 문법에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교과서>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85),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91),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1996), 《문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대학교 국어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 두산동아.
 박영목 외 5인(2012), 《독서와 문법 II》, 서울: 천재교육.
 윤여탁 외 8인(2012), 《독서와 문법 II》, 서울: 미래엔.
 이남호 외 9인(2012), 《독서와 문법 II》, 서울: 비상교육.
 이삼형 외 8인(2012), 《독서와 문법 II》, 서울: 지학사.

<교육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논저>

- 고춘화(2011), 국어사 교육 내용의 실현 양상과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125-152.
 권재일(1995), 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 지식 영역 지도의 내용, 《국어교육연구》 2, 서울대, 159-175.
 김경현(2005), 국어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새국어교육》 70, 한국국어교육학회, 5-36.
 김도혁(2012), 국어사 교육 내용과 제재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김상돈(2010), 중등학교에서의 국어사 교육 실태와 방안 연구, 《외대논총》 36, 부산외대, 21-36.
 김석득(1965), 소실자운(Graphemes)고 -중세 △·ㄱ·ㅇ·ㅅ·ㅈ·ㅊ·ㅌ·ㅍ·ㅍ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36, 연세대, 67-98.
 김영란(2007), 국어사 교육의 내용선정과 교수방법 연구 -고등학교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김영욱(1998), 국어사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선칭어문》 26, 서울대, 85-110.
 김유범(2013a),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63-96.
 김유범(2013b),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과 국어사 교육, 《문법 교육》 18, 한

- 국문법교육학회, 45-64.
- 김주원(1991), 한국어 모음추이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73-194.
- 김주원(1992), 14세기 모음추이가설에 대한 검토, 《언어학》14, 한국언어학회, 53-74.
- 김진희(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중세 국어 단원 고찰, 《문법 교육》 17, 한국문법교육학회, 33-63.
- 노명완(2012), 《국어교육학개론》(4판), 서울: 삼지원.
- 박형우(2004),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4, 한국어교육학회, 143-166.
- 박형우(2006a), 국어 교육에서의 중세국어 문법 교육, 《문법 교육》 4, 한국문법교육학회, 131-159.
- 박형우(2006b), 중세국어 문법과 국어사 단원의 구성에 대한 연구, 《문법 교육》 5, 한국문법교육학회, 81-112.
-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7-33.
- 석주연(2013),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 현황과 방향성 탐색 -근대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97-124.
- 양영희(2009), 중세국어 교육의 효율적 방안 모색, 《배달말》 44, 배달말학회, 291-314.
- 양영희(2013),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국어사 단원 구성 -선택 교육과정의 『국어Ⅱ』를 중심으로-, 《우리말 글》 59, 우리말글학회, 79-100.
- 양정호(2012),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국어사 지식 교육, 《한국어학》 57, 한국어학회, 155-177.
- 유창돈(1961), ㄱ·ㅇ형 어사고 -ㄱ·ㅇ형의 음가-, 《인문과학》 6, 연세대, 1-34.
- 이관규(2004),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0, 국어교육학회, 407-432.
- 이광호(1995), 후음 ‘ㅇ’과 중세국어 분철표기의 신해석, 《국어사와 차자표기》, 서울: 태학사, 605-636.
- 이근수(1986), ㄷ·ㅅ 종성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Ⅱ》, 서울: 탑출판사, 47-56.
- 이기문(1955), 語頭 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 震檀學會, 187-258.
- 이기문(1959), 《십육세기 국어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서울: 민중서림.
- 이도영(1999),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국어사, 《선청어문》 27, 서울대, 303-326.
- 이동석(2009), 국어의 주어진 속격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 15, 한국중원언어

- 학회, 133-137.
- 이동석(2010), 주어적 속격의 원조를 찾아서 -‘나의 살던 고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말과글》 122, 한국어문기자협회, 42-47.
- 이동석(2011), 일부 국어 관형 표현의 일본어 영향설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41-273.
- 이동석(2013), ‘ங’의 음가론, 《국어사 연구》 17, 국어사학회, 71-118.
- 이성연(1984), 후음 ‘ㅇ’의 음가와 분포 원리, 《한국언어문학》 23, 한국언어문학회, 119-136.
- 이승희(2012),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국어사 단원 내용 연구, 《국어교육》 138, 한국어교육학회, 147-168.
- 이익섭(1987), 음절말 표기 ‘ㅅ’과 ‘ㅆ’의 사적 고찰, 《성곡논총》 192, 성곡학술재단, 113-153.
- 이은정(1986), 8종성에서의 ‘-ㅅ’에 대하여, 《한글》 192, 한글학회, 3-18.
- 임동훈(2005), ‘-오-’ 논의의 쟁점들, 《우리말연구 서른아홉마당》, 서울: 태학사, 641-669.
- 전유리(2011), 효과적인 국어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방안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정연찬(1987), 欲字初發聲을 다시 생각해 본다, 《국어학》 16, 국어학회, 11-40.
- 주세형(2005), 학습자 중심의 국어사 교육 내용 설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2, 국어교육학회, 325-354.
- 지춘수(1964), 終聲八字制限에 있어서 「ㄷ, ㅅ」設定에 對한 考察,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145-165.
- 지춘수(1971), ㅅ 종성 재론, 《한글》 147, 한글학회, 121-154.
- 지춘수(1986), 국어표기사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최세화(1983), 초성 합용병서에 대한 두 가지 단상, 《한국어문학연구》 17, 동악어문학회, 145-154.
- 한재영(1990), 선어말어미 ‘-오/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아출판사, 435-441.
- 허 용(2000), 중세국어 ‘ㅇ’의 음가 해석에 대한 재고, 《현대문법연구》 20, 현대문법학회, 1-22.
- 허 용(1953), 이조초기 문헌의 표기법에 나타난 문법의식, 《국어국문학》 3, 국어국문학회, 38-41.
- 허 용(1957), 《國語音韻論》, 서울: 正音社.

허 웅(1965), 《國語音韻論》(改稿新版), 서울: 正音社.

황선엽(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 연구》 16, 국어사학회, 35-61.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전화: 043-230-3528

E-mail: dsdslee@knue.ac.kr

투고 일자: 2014. 2. 11.

심사 일자: 2014. 2. 13.

게재 확정 일자: 2014. 2. 27.

Descriptive Grammar and School Grammar on Korean
Language History – Focus on Reading and Grammar
Textbooks

[Lee, Dong-seok]

국어사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 -<독서와 문법 II>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동석]

The review on contents of Korean language history in the reading and grammar textbooks exhibits some special features and problems. The special features are as follows: contents types are divided into the history of the times and the history of the themes. The proportion of the middle Korean language is high. The grammar items of each textbook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e problems are as follows: In some cases the explanations of the grammar are different. The notation of the middle Korean texts is different. The explanations of the grammar aren't connected by age. Specially contents not confirmed in descriptive grammar were described definitively such as the opposition of voiced and voiceless, the sound value of the coda ‘ㄸ’, vowel shift and the function of ‘-오/우-’.

Key words: Korean language history, Descriptive Grammar, School Grammar, Textbooks, Grammar Education, Hunminjeongeum